

MOCOM

회사소개서

(주)모컴테크

(주)MOCOMPLEX

(주)MOCOM U.S.A.

전통있는 회사

- 1953년에 창업된 한국 최초의 광학회사

- 광학기기 수출회사
- NIKON, OLYMPUS 현미경 렌즈 수출
- 미국 TASCO 조준경 수출



- 한국 벤처기업 1호

- 1982년 : 전경련 산하 (주)한국기술 개발과 합작 벤처기업 제 1호 회사
- (한국기술개발(주):벤처 투자를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전경련 산하 회사)



한국경제 1982.04.21

< 현재 >

(주)MOCOMTECH(기술지주회사)

(주)MOCOMPLEX(극장프랜차이즈)

(주)MOCOM U.S.A.(미국현지법인)



규모 있는 회사

- 동두천, 포천 1, 2, 3 공장
- 연구소: 서울 노원구 공릉동
- 미국 CA 바스토우 40,000평 공장 부지 확보 (미국시장 진출 교두보)



서울연구소



동두천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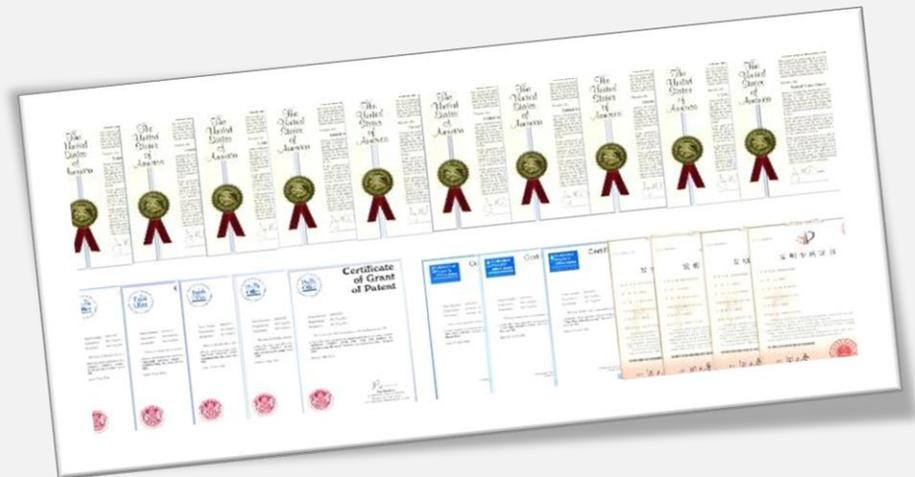
포천 공장



미국 공장부지

기술력 있는 회사

- 특허 보유 : 400여건
- 상표 : 80여건
- ◆ 미국 등 해외특허 120여건 등록 (VR관련 미국특허 20건 등록)
- ◆ 연간 10건 이상의 해외 특허 등록 회사



국내/해외에서 인정받은 기술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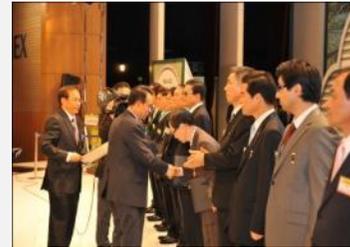
- ◆ 1999 대통령상
- ◆ 2001 대통령표창
- ◆ 2002, 2003, 2004 CES 기술혁신상
- ◆ 2008 세계 일류 상품
- ◆ 2009 철탑산업훈장
- ◆ 2012 KES 기술혁신상
- ◆ 2017 은탑산업훈장
- ◆ 2018 서울 VR AR AWARD – 디바이스부문
- ◆ 2019 B2B Marketing Expo Fina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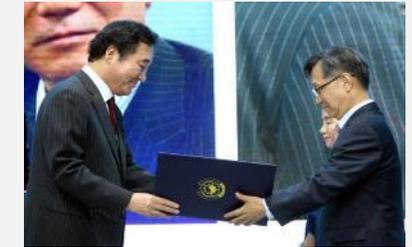
1999. 대상(대통령상)
(김종필 국무 총리)



2001. 대통령 표창
(대통령 친수)



2009. 철탑 산업훈장 수훈
(한승수 국무총리)



2017. 은탑 산업훈장 수훈
(이낙연 국무총리)



1999
대통령상



2001
대통령상



2008
세계일류상품



2009
철탑산업훈장



2017
은탑산업훈장



2004
CES
기술혁신상



2003
CES
기술혁신상



2002
CES
기술혁신상



2012
KES
기술혁신상



2018
VR AR
AWARD

모컴테크의 VR제품

포켓 VR NABI



포켓 VR NABI-ECO (판촉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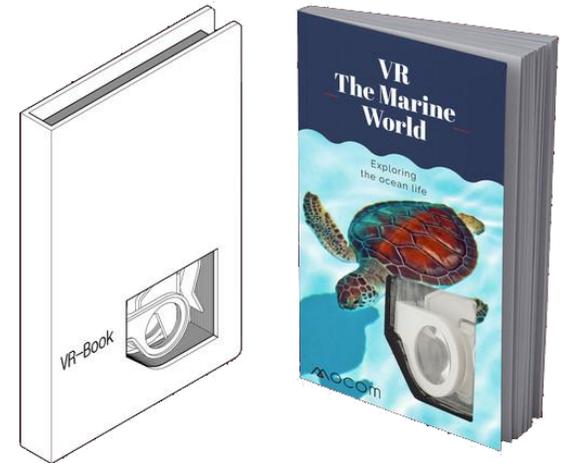
애니빅 VR 학습세트



VR 카탈로그



VR BOOK



모컴테크의 VR제품

VR 투어박스



MOCOM VR CINEMA



세계 최초 포켓 VR

NABI™

포켓사이즈의 스마트폰용 VR안경

국내, 미국 특허 제품



일반적인 HMD와 비교시

- 1/14의 무게
- 1/34의 크기 (포켓크기)
- 1/10의 가격



◆ [포브스지 기사 : 링크](#)

◆ 5G시대의 스마트폰 필수 악세서리

◆ 적용 : VR 콘서트, VR광고, VR 애니메이션, VR카툰, GIFT, 홍보용 등

PROMOTE SMARTER!

NABI™ - ECO

포켓사이즈의 스마트폰용 VR기기 (보급형 / 판촉용)

커스텀 로고 및 디자인

4컬러로 앞부분에 원하는 로고
& 디자인 삽입이 가능



보관 케이스(옵션)

케이스에 스티커 부착, 브랜드 홍보 효과 증대 (관광청, 관공서, 대학, 회사, VR홍보용)

MOCOM

국내, 미국 특허 제품



모컴테크, 머리에 쓰지 않는 VR!

초중고대 교육용 각광

-모컴테크 교육분야 VR 도시건설-해부학-터빈-영어 등 전방위

확산



[공과대학 강의실에서 VR기기를 교육에 활용]

미국 카네기 멜론대학교의 도시건설, 틀레도 의과대학의 해부학, 싱가포르 난양 폴리텍의 터빈에 대한 학습, 한국외국어대학교의 VR(가상현실)영어 등 VR 을 적용한 교육이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4 월 교육부에서는 VR 콘텐츠를 담은 디지털 교과서를 2018 년도에 초등학교 3~4 학년, 중학교 1 학년 사회-영어-과학 수업에 적용하고, 2020 년까지는 5~6 학년, 중학교 2~3 학년 등 전 학년 교육에 적용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각종 교육용 VR 책자 및 콘텐츠는 풍부해졌으나, 적절한 교육용 VR 기기 세트가 없었다. 실제 사용자들은 헤드셋 타입의 VR 기기는 한번 사용 후에는 다시 착용하기가 번거로웠다. 종이로 만든 카드보드는 내구성이 좋지 않다는 단점들이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한 사용 시에 시야를 차단하기 때문에 교육과 병행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기기 자체의 부피가 커서 휴대성도 좋지 않았다. 한 사람이 한 교실의 인원인 20~30 개 세트를 한 번에 이동시킬 수 없는 단점들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모컴테크(대표 최해용)는 대학 및 중고등 학교 교육용 3D/VR 학습세트(모델명 애니빅 VR-300)를 개발/출시했다.

모컴의 애니빅 VR-300의 VR기기는 배율이 5배의 고배율 렌즈를 채택하여 몰입감이 우수하다. 형태는 점으면 손바닥 반만한 크기로 줄어든다. 펼치면 자동으로 초점이 맞게 설계가 되어있었다. 세계 최초 핸드-홀드 방식의 포켓 VR기이다.

기존에 많이 쓰던 카드보드나 VR 헤드셋 대비 부피는 30 분의 1 에 불과하고, 무게 또한 25g 으로 나비처럼 가벼웠다. 그동안 장시간 사용 시 근시 유발과 목 (경추) 부상 우려를 해소시켰다는 장점이 있어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 교육에도 적절하다.

이밖에 VR 개념을 혁신한 기술력이 주목받고 있다. 우선 스마트폰에 간단히 끼워 사용하는 형태다. 머리에 착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수시로 VR 영상과 강의를 교차하여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30 개 VR 뷰어가 007 가방에 한 세트 구성되어, 강의실 간의 이동이 간편하다. 부피가 작아 차량 이동도 간편하다. 보관도 쉬워 학교 교육용은 물론 회사의 VR 홍보용, 사내교육, 기술 연수교육 VR 회의에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이 2018 년도 실리콘밸리 VR 국제 컨퍼런스인 AWE USA 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유명한 미국경제지 포브스에서도 게재되었다. 또한 미국 내 유명대학에서는 수업시간 실습용으로, 많은 관공청에서 홍보용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애니빅 VR-300(30 Sets)]

앞으로 원격영상교육을 위주로 하는 각 유명 대학의 Mooc 교육과 사이버대학에서 원격영상을 VR 교육으로 대체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 VR 기기는 미국 특허(US PAT no.9,804,401)등록이 되어있다. 일본, 중국, 인도에도 특허 출원되어 있다. 곧 VR 학습 세트에 아마존에 리스팅할 예정이다. 미국의 대학과 전 미국 초-중-고 과학 교사 협회와 미국 정부 조달시장에 납품을 추진 중에 있다.

박명기 기자 pnet21@gametoc.co.kr
(저작권 © 게임톡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VR엑스포] 모컴테크, 포켓 VR기기 'NABI' 400개 완판

세계 최초 포켓 VR기기 미국 이어 한국 런칭 성공...디바이스 어워드 수상

2018년 04월 24일 (화) 22:38:07

박영기 기자 pnet21@gametoc.co.kr



세계 최초 포켓 VR기기 'NABI'가 SEOUL VR, AR Expo(이하 서울 VR AR 엑스포)에서 400개 조기 완판을 기록하면서 디바이스부문 어워드를 수상하였다.

모컴테크(대표 최해웅)의 'NABI'는 미국에 이어 한국에서 런칭을 성공하면서 기술력과 대중 인기의 '두 토끼'를 잡았다.

모컴 전시관은 체험관이 아닌 소규모 전시관이었다. 그럼에도 3000장의 카탈로그가 배포되었고, 샘플 판매로 준비한 제품 400개는 조기 소진되었다. 1000~3000개 단위의 대량 구매 상담도 100여 건이 늘어났다.

'NABI'는 포켓에 넣을 수 있는 초소형의 크기와 30g 미만의 작은 사이즈의 VR(가상현실)기기다. '나비'처럼 작고 가벼워, 스마트폰에 제품을 간단히 거치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수시로 VR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소비자 가격도 VR시장이 대중화 될 수 있도록 1만9000원대로 책정되었다.

렌즈 배열은 무려 5배로, 넓은 광 시야를 제공하여 성능도 뛰어나다. 특히 렌즈 양면비율이 10:1로 설계되어 왜곡 수차도 상당량 보정한다. 사용 방법도 간편하다. 나비처럼 좌, 우 렌즈판을 펼치고 스

마트폰 가운데에 장착만 하면 초점은 자동으로 일치한다. 기존 카드보드나 타사 VR 기기와는 다르게 스마트폰의 표면이 밖으로 노출되어 액정 터치 등의 컨트롤을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이 제품은 구글에서 운영하는 카드보드 인증프로그램에서 인증을 획득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스마트폰의 설정이 모컴테크의 NABI에 최적화가 되어, 간편하게 유튜브 3D영상이나 3D VR영상을 시청하거나,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다양하고 많은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모컴테크는 현미경, 조준경 등 렌즈를 만들던 40년 이상 된 광학회사다. 'NABI'는 2013년도에 이미 개발을 완료했다.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 특히 등록된 세계 최초 포켓 VR 제품이다. 한국, 중국, 일본, 인도에도 원천기술 특허를 확보했다.

최해웅 모컴테크 대표는 "수익성을 보고 개발한 제품은 아니다. VR 만화, VR 카탈로그, VR 홈페이지, VR 콘텐츠 등 좀 더 다양한 VR 관련 회사들이 VR산업을 대중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필수 제품으로 판단하여 생산 공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VR AR 엑스포에서 적지 않은 반응을 받고, 완판을 기록해 기쁘다. 간단하게 유튜브나 3D VR를 시청해보고 즐겨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게임톡(<http://www.gametoc.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문의

☑ 인센티브 ☑ 상담하기

3D/VR 교육 학습세트

국내, 미국 특허 제품

애니빅 VR-300

동시에 30명 3D/VR 교육가능!

4차산업교육의 필수인 3D/VR을 애니빅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애니빅-VR300 학습세트에 포함 되어있는 VR/3D뷰어는 5배 고배율로 확대, 자동 초점 기능, 최소 부피/무게의 제품으로 미국과 한국에 특허등록된 제품입니다.

구성요소

- 포켓 VR 30개
- 알루미늄 가방 1개
- 안전보관 스폰지
- 개인용 사용설명서 30개



5G시대에 맞는 마케팅

3D / VR 카탈로그 & 기념품

IMMERSIVE한 체험 효과로 가장 효과적으로 마케팅 하자!

언택트마케팅의 최적의 솔루션
새로운 형식의 카탈로그인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효과적으로 체험
마케팅을 진행

부동산, 전자-카메라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제품,
신발-주얼리-일상용품, 여행지 기념품 등 다양하게
적용 가능

제품 구성

포켓 VR 기기 + 카탈로그 + 3D, VR 영상



읽고, 보고, 체험하는 책

VR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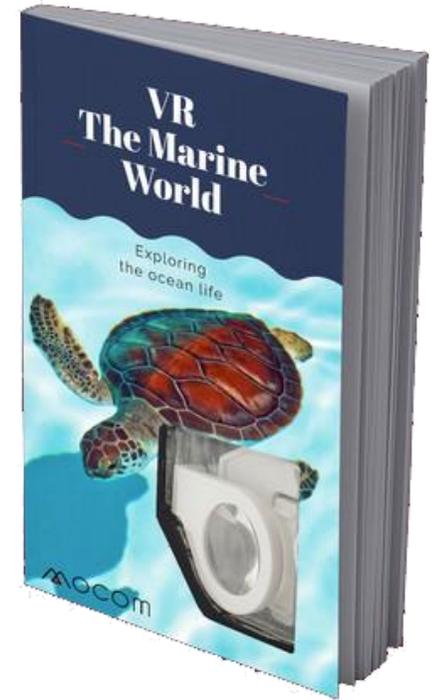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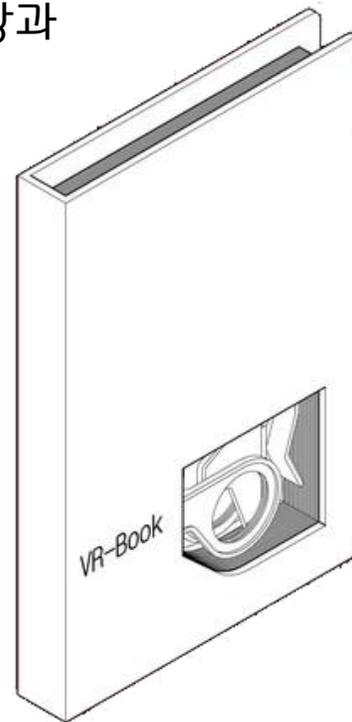
독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3D 영상과 VR 영상으로 연결되며, 포함된 포켓 VR을 스마트폰에 클립처럼 끼워 VR 영상을 감상

다양하게 적용 가능

초, 중, 고교의 교과서, 백과사전, 생물도감, 각 대학의 논문, 의학 서적, 건축서적, 여행서적, 음악관련 서적

제품 구성

포켓 VR 기기 + QR코드 포함 책 + 3D, VR 영상



VR 투어박스

- ◆ 그랜드 캐년, 나이아가라 폭포 등 유명 관광지의 VR 영상을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이 체험 할 수 있는 VR 장치 (1\$에 5분 정도 감상)
- ◆ VR 헤드셋 (HMD)를 착용하지 않고, VR 투어박스 윈도우를 통해 영상을 감상하면서 손으로 바를 잡아 방향 조절가능
- ◆ 공항, 터미널, 기차역, 전철역 유명관광단지에 설치 가능

미국 한국, 특허 등록



모컴테크, 관광체험 'VR투어박스' 중국 특허 따냈다

한국과 미국에 이어 중국 특허청 통과...글로벌 관광지 VR로 특급여행

2018년 07월 15일 (일) 19:35:20

박영기 기자 pnet21@gametoc.co.kr

"만리장성-그랜드캐년 같은 세계 유명 관광지를 VR로 투어해요."

VR-AR 기기 제조업체인 (주)모컴테크(대표 최해웅)가 관광 체험 장치 'VR 투어박스'를 한국과 미국에 이어 중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았다.

모컴테크의 'VR 투어박스'는 그랜드캐년,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은 유명 관광지를 사전에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의 비경도 VR(가상공간)를 통해 경험해 볼 수 있게 해준다.

유엔 세계 관광기구에 따르면 세계 관광객 수는 2017년 13억 명을 기록했다. 숫자도 매년 증가세다. 하지만 관광객이 사전에 접할 수 있는 정보는 한정적이다. 또한 정해진 여행 기간에 방문할 수 있는 여행지는 더욱 제한적이다.

이런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관광을 눈앞으로 펼칠 수 있도록 개발된 'VR 투어박스'는 마치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몰입감을 선사한다. VR 헤드셋 대비 50~100배의 VR 화면으로 제공한다. 특히 좌/우 320°, 상/하 180°의 시야각으로 회전하면서 2D/3D의 4K 고해상도 영상을 보여준다.



[모컴테크의 VR 투어박스]

모컴테크는 이번 중국 특허 등록을 계기로 베이징에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 중국 관광당국과 협의를 통하여 이 제품을 터미널, 공항, 관광지, 쇼핑몰 등 약 1만여 곳에 설치 및 운영할 계획이다.

'VR 투어박스'는 이미 미국 특허등록을 계기로 미국 내 관광청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미국 현지법인을 통해 공항 및 주요 관광지에 설치하여 10분당 1달러(약 1133원)의 사용료를 받는 코인 VR 관광장치를 설치 추진 중이다.

일본, 인도에서도 특허도 확실시되어 앞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세계 여러 나라의 공항 및 터미널, 유명 관광도시 등에 약 3만대를 설치하고 매년 80만 이상의 관광 콘텐츠를 제공한다.

최해웅 모컴테크 대표는 "VR로 체험해보고 싶은 영상 중 관광체험 영상이 1위로 조사된 바 있다. 가상현실로 체험한 관광지는 꼭 방문하고 싶다는 욕구가 2배 이상으로 높아진다는 조사 발표가 있다"며 "이 비즈니스는 세계 유명 관광지를 가까운 곳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VR 관광 사업이 될 것이다. 1대당 1일 20달러(약 2만 2660원) 이상의 수익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간 약 2억달러(약 2260억원)의 VR을 통한 또 다른 관광 수익이 예상된다"라고 전망했다.



[모컴테크의 VR 피어터]

모컴테크는?

한국 지적재산권 350여건, 국제 특허 100여 건을 보유하고 있는 범프로젝터스크린과 VR 테크놀로지의 선두주자 기업이다. 1982년 전경련이 특별법에 의해 KTDC와 합작 설립한 벤처비즈니스 제1호 회사로 공식적인 한국 벤처기업인 제1호다.

경기도 동두천시에 제1공장, 포천시의 제2공장 등 아시아 최대 스크린 전문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젝션 스크린 원천 기술을 세계 최대로 보유한 모컴테크는 매년 30건 이상의 신 기술을 개발하고 전세계 30개 국에 수출하면서 글로벌 스크린 신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VR 시네마

세계 최초 VR 극장 미국 특허 등록



최소 4석에서 최대 300석까지 다양한 사이즈의 VR 시네마

의자가 개별적으로 좌, 우 360도로 회전 가능하여
관객들이 여러방향의 화면을 시청(전, 후 120도) 할 수 있음

미국 , 한국 특허 등록 , 중국, 인도, 영국 등 다수 국가 특허 출원



최해용 대표 “모컴테크, 세계 최초 VR 극장 美 특허 따냈어요”

VR, AR 전문제조업체 모컴테크, “영화 ‘스타워즈’도 생생한 360도 영상 나올 것”

“내년 12월 영화 ‘아바타’ 2편, 내년엔 3,4편이 나온다. 아마 4편에는 VR로 나올 것 같다.”

모컴테크(대표 최해용)가 세계 최초로 초대형 스크린 VR극장 시스템으로 미국 특허를 획득하고 본격적인 VR 극장 사업에 진출한다.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전문제조업체인 모컴테크는 최대 약 300인치 4개 크기인 약 1200인치의 초대형 극장용부터 100인치 크기의 VR 홈시어터 구조까지 적용된다.

기존 HMD 3인치x3인치 대비 1만배에서 1000배에 이르는 2D/3D VR 화면을 좌, 우 360°, 상, 하 180°의 시야각으로 제공한다. 또한 의자는 좌, 우 360° 상, 하 180°로 각각 회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좌, 우 360°, 상, 하 180°의 스크린 범위 내에서 관객이 자유롭게 회전하면서 관람할 수 있다.

최해용 모컴테크 대표는 “전세계 영화 시장을 선도하는 할리우드에서 영화 ‘스타워즈’를 생생한 360도 극장판 스크린으로 볼 수 있을 날도 멀지 않았다. VR 영화를 제작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머리에 쓰는 HMD에 의존하면서 초대형 화면에서 주는 영화의 현장감, 박진감, 사실감을 주는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영화 ‘스타워즈’의 우주 전투 장면의 경우, 앞에서 공격은 물론 좌, 우 뒷면에서 공격하는 장면도 동시에 관람할 수 있어 마치 관객이

우주 전투 현장 한가운데에 있는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앞서가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의 스크린 VR극장으로 인정받아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았다. 모컴테크는 미국 특허를 계기로 계열 회사 모컴플렉스(대표: 최해용 겸직)를 설립했다. 미국 LA 또는 라스베가스에 현지 사무소를 개설하여, 할리우드 영화사 및 영화 배급사와 극장제인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최해용 대표는 한때 명보극장의 기획실장으로 재직시 영화 ‘로보캅2’ ‘양들의 침묵’을 개봉하여 한국 흥행 1위에 기여했다. 영화배급사 신신영상배급사의 대표이사도 역임한 바 있다.

앞으로 최 대표가 VR시장에서 유망한 분야로는 “머리에 쓰는 HMD 헤드셋보다 초대형으로 갈 것 같다. 모컴테크도 교육용 포켓 VR을 통해 생태계 활성화를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만화와 2D에서 3D의 홈페이지로 영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극장 사업은 전세계 최고가 미국이다. 미국에 자주 가서 보니, 다 VR극장으로 갈 생각이었다. 문제는 영화를 만들어도 상영할 장소가 한계가 있고, 스크린에서 박진감이 떨어졌다. 제대로 솔루션이 없다. 사실 라스베가스 유명 쇼에서는 쇼를 VR로 보여주고 싶어했다. 그런 분위기를 본 것을 계기로 극장 스크린 분야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최해용 대표는 “모컴테크는 광학회사에서 출발해 투사 조준경, 망원경 등에서 3D 영상 기반을 발전을 해왔다. 3~4년 전부터 VR에 시작했다. 미국에서 특허 18개를 얻었다. 교육용 포켓 VR 같은 작은 기기와 극장용 등 모든 분야에서 기술력을 확보했다. 그 공로로 정부로부터 은탑 훈장도 받았다”고 웃었다.

모컴테크는 앞으로 100인치 내외의 4인석 VR 홈시어터를 개발, 홈시어터 최대시장인 미국에 VR 홈시어터 시장도 공략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중국 유명 전자회사에 VR 블루레이 기기 개발을 타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 및 인도 스크린 VR극장 특허도 결정될 것으로 보여, 초대형 스크린 VR 극장 시스템과 VR 홈시어터 활성화에 따라 VR 콘텐츠 시장의 급신장이 기대되고 있다.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gametoc.co.kr

< 저작권자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감사합니다!

(주)모컴테크

(주)모컴플렉스

(주)모컴U.S.A.

대표이사 최해용

EMAIL

SALES@MOCOMTECH.COM

WEB

MOCOMTECH.COM

MOCOMSCREENS.COM

MOCOMVR.COM